

통계로 본 2024년~2025년 1분기 식품제조업 동향

박미성 | 김성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식품산업 정보분석 전문기관’은 식품산업 정보를 수집·가공·심층분석하여 수요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식품산업진흥법』에 의거하여 지정·운영되고 있음.
- 식품외식정보 웹진 2025년 제8호에서는 국내 식품제조업 관련 2024년 연간 및 2025년 1분기(1~3월)의 주요 지표(거시경제, 출하 및 물가, 재고, 수출입, 식품산업 1분기 경기 현황 및 2분기 경기 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가공·분석하여 정리함.
- 분석 결과, 1) 2024년의 식품제조업의 실질 GDP는 전년 대비 증가한 반면, 가계의 실질 식품(음식료품 및 외식) 지출액은 감소함. 2) 2025년 1분기 출하지수는 대부분 업종에서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하였고, 생산자물가지수 역시 상승하였으나, 상승 폭은 다소 둔화함. 3) 2024년 식품제조업의 재고율은 대체로 100%를 초과하였으며, 이와 같은 추세는 2025년 1분기에도 지속됨. 4) 가공식품 수출액은 2024년의 상승세가 2025년 1분기에도 지속되어 최대치를 경신함. 5) 식품제조업 취업자 수는 전년 동기 대비 소폭 증가하며 최근 5개년 1분기 기준으로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한 한편, 상용직 비율은 전년과 유사한 수준을 보임. 다만, 6) 2025년 2분기 식품산업 경기는 1분기 대비 뚜렷한 개선을 기대하긴 어렵지만, 일부 업종에서는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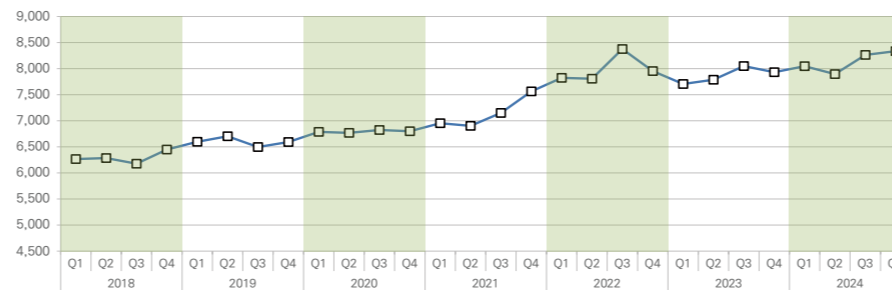
1. 2024년 식품산업 관련 거시지표

2024년 식품제조업 실질 GDP는 2023년 대비 증가하였으나, 음식료품에 대한 실질 가계소비지출은 2023년 대비 감소

- 2024년 식품제조업의 실질 GDP는 32.5조 원으로, 전년 대비 3.4% 증가하였음.
 - 이는 전체 제조업 증가율(+4.0%)보다는 다소 낮은 수준이나, 글로벌 K-Food 수요 확대와 국제곡물 가격 안정에 힘입어 2024년 3분기까지 비교적 견조한 성장세를 유지함.
 - 그러나, 4분기에는 미국 대선, 러·우 전쟁, 중동 정세 불안 등 대외 불확실성과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이 맞물리며 환율 변동과 내수 부진 등의 요인은 하반기 성장세 둔화로 이어짐.

식품제조업 분기별 실질 GDP 추이

단위: 십억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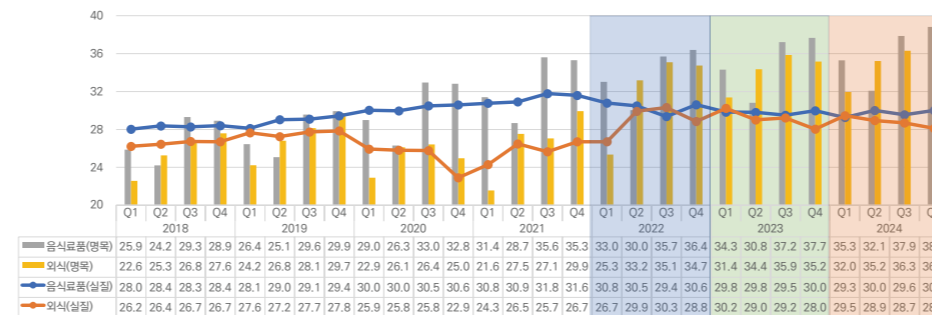


주: 분기별 실질 GDP는 계절조정 자료를 이용
자료: 한국은행, 「국민계정」, 2025.1/4, 2025.5.1., 경제활동별 GDP 및 GNI.

- 다만, 2024년 가계의 실질 식품(음식료품+외식) 지출액은 234.2조 원으로 2023년(235.6조 원) 대비 0.6% 감소함.
 - 그중 음식료품에 대한 실질 지출액은 118.8조 원, 외식 부문의 실질 지출액은 115.4조 원으로, 전년보다 각각 0.3%, 0.9% 감소함.
 - 한편, 음식료품과 외식 부문에 대한 명목 지출액은 각각 144.0조 원과 139.6조 원으로 나타나 전년 대비 2.9%, 2.1% 증가함. 이는 식료품 구매 및 외식에 지출한 금액 자체는 증가하였지만, 물가 상승의 영향으로 실질적인 소비 수준은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보임.

음식료품 및 외식(음식/숙박)에 대한 분기별 가계소비지출(실질/명목) 추이

단위: 조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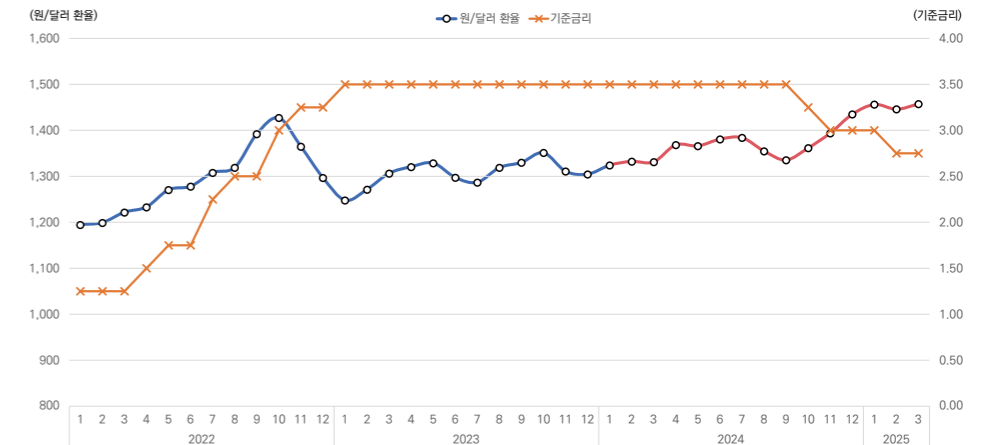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국민계정」, 2024.4/4, 2024.5.1., 가계의 목적별 최종소비지출.

- 원/달러 환율은 2024년 하반기부터 대내외 정세 불안정성 심화로 인해 상승하기 시작하여 2025년 1분기에 1,452.8원을 기록함.
 - 2023년에는 환율이 비교적 안정세를 보이며 1,300원 내외에서 등락을 반복하였으나, 2024년 하반기 이후 대외 여건 악화로 상승세가 지속되어 연말에는 1,400원을 상회하였고, 이는 2025년 1분기까지 이어짐.
 - 환율 상승은 식품 수출 관점에서는 기회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나, 원재료 수입가격 상승에 따른 원가 부담 증가 등 부정적 영향 또한 우려됨.
 - 원/달러 환율: ('24년 1분기) 1,328.7 → (2분기) 1,371.1 → (3분기) 1,357.5 → (4분기) 1,396.3 → ('25년 1분기) 1,452.8
 - 한편, 국내 기준금리는 2024년 10월부터 점진적인 인하 기조로 전환되었으며, 2025년 1분기 현재 2.75%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금리: (~'24년 9월) 3.50% → ('24년 10월) 3.00% → ('25년 2월~) 2.75%

월별 대미 환율 및 기준금리 추이

단위: 원/달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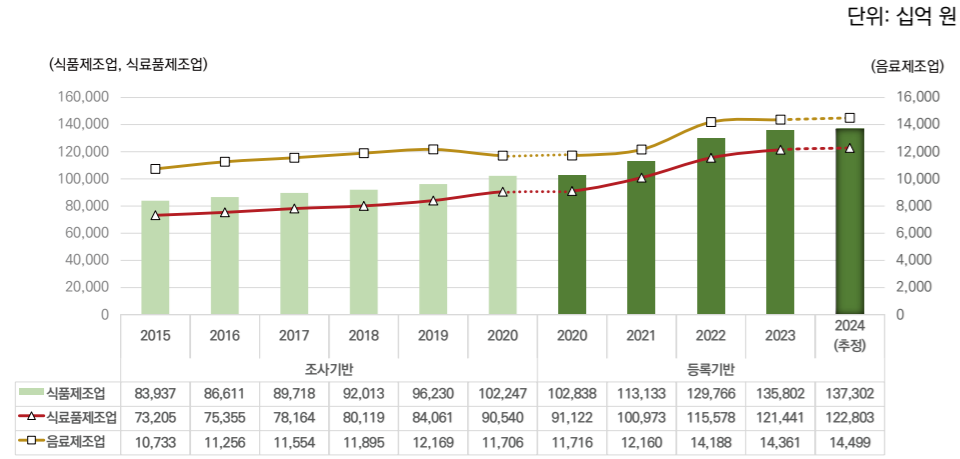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통화금융통계」, 20250429, 2025.5.1., 주요국 통화의 대원화환율; 한국은행, 「통화금융통계」, 20250429, 2025.5.1., 한국은행 기준금리 및 여수신금리.

2. 식품제조업 업종별 출하 및 물가

2025년 1분기 식품제조업의 출하액은 대부분 업종에서 전년 동기대비 소폭 증가, 이는 출하 물량 회복과 물가 요인이 함께 작용한 결과

- 2024년 식품제조업의 출하액은 전년 대비 1.1% 증가한 137조 원으로 추정됨.
 - 그중 식료품제조업은 약 122.8조 원, 음료제조업은 14.5조 원으로 각각 전년 대비 1.1%, 1.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2024년 출하 물량은 전년과 큰 차이가 없었으나, 생산자물가의 상승 영향으로 출하액이 소폭 상승한 것으로 판단됨. 식료품제조업의 경우, 출하 물량은 전년 대비 0.3% 증가하는 데 그쳤으나, 생산자물가는 0.8% 상승함. 음료제조업에서의 출하 물량은 전년 대비 2.2% 감소한 반면, 생산자물가지수는 3.2% 상승함.

2015~2024년 식품제조업 출하액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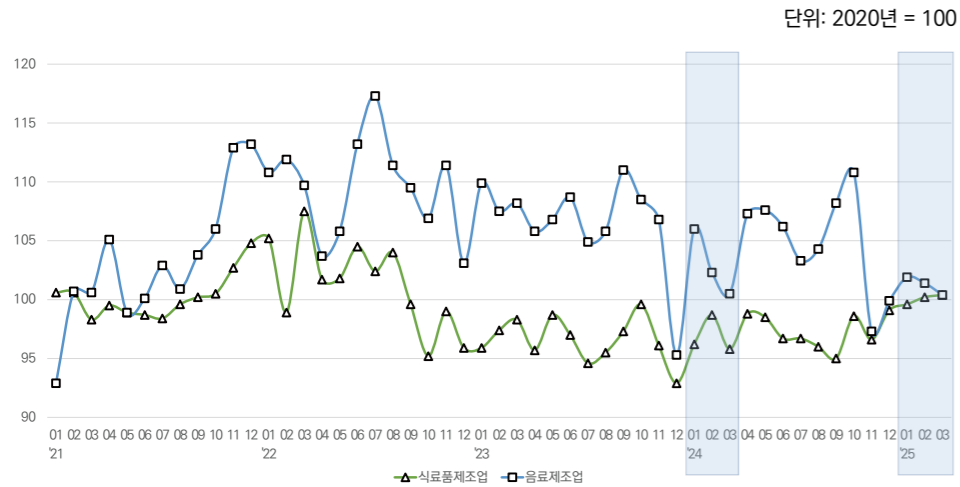


주: 2024년 출하액 추정치는 광업제조업동향조사(통계청) 출하지수 및 생산자물가지수(한국은행) 증감률을 이용하여 추정함.
 자료: 통계청, 「공업제조업조사」, 2023, 2025.5.1., 시도/산업분류별 주요지표; 통계청, 「공업제조업동향조사」, 2025.3., 2025.5.1., 시도/산업분류별 주요지표; 한국은행, 「생산자물가지수」, 2025.3., 2025.5.1., 생산자물가지수.

● 2025년 1분기 식품제조업(식품+음료)의 출하지수는 전년 동기 대비 소폭 증가하였으나, 100 내외로 2020년과 비슷한 수준임.

- 식품제조업의 1분기 출하지수는 평균 100.1로, 전년 동기(96.9) 대비 3.3% 증가함. 반면, 음료제조업은 2024년 11월 이후 일시적인 회복세를 보였으나, 1분기 출하지수는 평균 101.2로 전년 동기(102.9) 대비 1.7% 감소함.
- 월별 흐름을 보면 양 업종 모두 2024년 11월 큰 폭의 출하 감소 이후 회복양상을 보이고 있음. 2025년에 접어들어 식품제조업은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는 반면, 음료 제조업은 소폭 둔화 흐름을 보임.
 - 식품제조업 출하지수: ('25년 1월) 99.6, (2월) 100.2, (3월) 100.4
 - 음료제조업 출하지수: ('25년 1월) 101.9, (2월) 101.4, (3월) 100.4

식품제조업과 음료제조업 월별 출하지수 추이



주 1) 2025년 2~3월 수치는 잠정치로, 추후 통계 확정 시 일부 조정될 수 있음.
 2) 출하지수는 대표품목(490개)의 금액조사 후 각 품목에 대해 생산자물가지수를 환가하여 물량 단위로 작성됨.
 자료: 통계청, 「공업제조업동향조사」, 2025.3, 2025.5.1., 시도/산업별 광공업생산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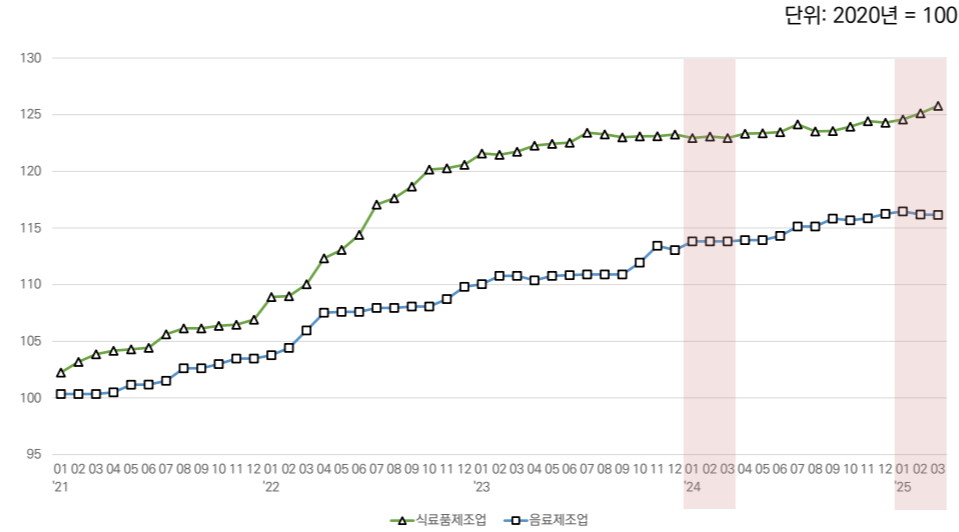
● 2024년 식품 및 음료제조업의 생산자물가지수는 각각 전년 대비 0.8%, 3.2% 상승하면서 2023년에 비해 상승세는 다소 완화된 것으로 나타남.

- 기상여건 악화로 국제곡물 생산 감소 우려가 있었음에도, 국제곡물 가격은 하향 안정화 추세를 보이며 생산자물이 상승을 일부 억제한 것으로 사료됨. 반면, 강달러 기조 등 대외적인 환경적 요인이 원가 상승 압력으로 작용함.
 - 식품제조업 생산자물가지수: ('22년) 115.2 → ('23년) 122.6 → ('24년) 123.6
 - 음료제조업 생산자물가지수: ('22년) 107.3 → ('23년) 111.2 → ('24년) 114.8

● 2025년 1분기(1~3월) 식품 및 음료제조업의 생산자물가지수는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8%, 2.2% 상승하였으며, 이는 2024년 4분기와 비교해도 소폭 상승세를 유지한 것으로 나타남.

- 식품제조업의 1분기 생산자물가지수는 125.2로, 전년 동기(123.0) 대비 1.8%, 직전분기(124.2) 대비 0.8% 상승함. 동 기간 음료제조업은 116.3으로, 전년 동기(113.8) 대비 2.2%, 직전분기(115.9)보다도 소폭 증가한 수치를 기록함.

식품 및 음료 제조업 생산자물가지수 월별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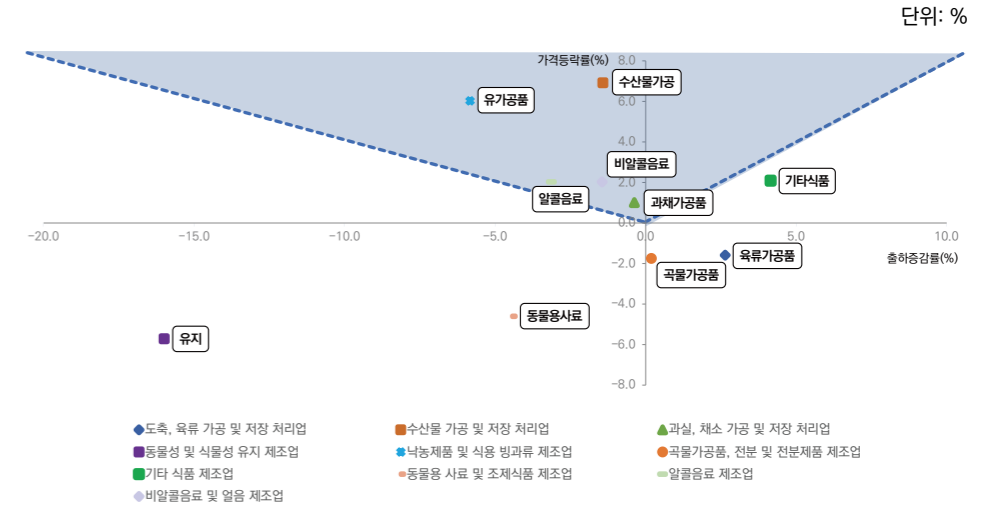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생산자물가지수」, 2025.3., 2025.5.1., 생산자물가지수(기본분류).

● 2024년 출하는 대부분 품목에서 2023년 대비 감소하였으며, 특히 식용 유지와 동물용사료 업종에서 감소 폭이 두드러짐.

- 식용 유지는 원재료의 대부분을 수입산에 의존하는 구조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와 원/달러 환율 상승 등으로 수입단가가 상승하면서 출하가 위축된 것으로 판단됨.
- 동물용사료는 한-육우와 돼지 등 주요 축종의 사육 마릿수가 전년 대비 감소함과 더불어 고환율로 인한 수입 원재료 가격 불안 등의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출하가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분석됨.

2024년 기준 전년 대비 업종별 출하 및 가격 변화율



자료: 통계청, 「공업제조업동향조사」, 2025.3., 2025.5.1., 시도/산업분류별 주요지표; 한국은행, 「생산자물가지수」, 2025.3., 2025.5.1., 생산자물가지수.

● 2025년 1분기에는 대부분 업종에서 출하가 전년 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업종별로는 기타식품(6.2%), 곡물가공 및 전분(6.1%), 유지(4.8%), 육류가공(2.0%) 등의 순으로 증가 폭이 컸으며, 음료제조업의 경우 알콜음료 부문의 출하가 전년 대비 4.2% 증가함.
- 기타식품의 경우 비교적 가격 부담이 적고 보관이 용이한 간편식 제품을 중심으로 수요가 유지되면서 출하 증가에 기여한 것으로 보이며, 곡물가공 및 전분제품의 경우 떡볶이, 냉동 김밥 등 쌀 활용 가공식품에 대한 국내외 수요 증가와 맞물려 출하가 확대한 것으로 분석됨.

2025년 1분기 업종별 출하지표의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

단위: %

업종명(축약 업종명)	출하지수	생산자물가지수
식품제조업	3.3	1.8
도축, 육류 가공 및 저장 처리업(육류가공)	2.0	1.1
수산물 가공 및 저장 처리업(수산물가공)	-2.5	11.4
과실, 채소 가공 및 저장 처리업(과·채가공)	-1.4	2.4
동물성 및 식물성 유지 제조업(유지)	4.8	-5.5
낙농제품 및 식용빙과류 제조업(낙농품)	2.7	2.1
곡물가공품, 전분 및 전분제품 제조업(곡물가공및전분)	6.1	-0.8
기타 식품 제조업(기타식품)	6.2	2.7
동물용 사료 및 조제식품 제조업(사료및조제식품)	1.0	-1.8
음료제조업	-1.7	2.2
알콜음료 제조업(알콜음료)	4.2	-0.1
비알콜음료 및 얼음 제조업(비알콜음료)	-5.4	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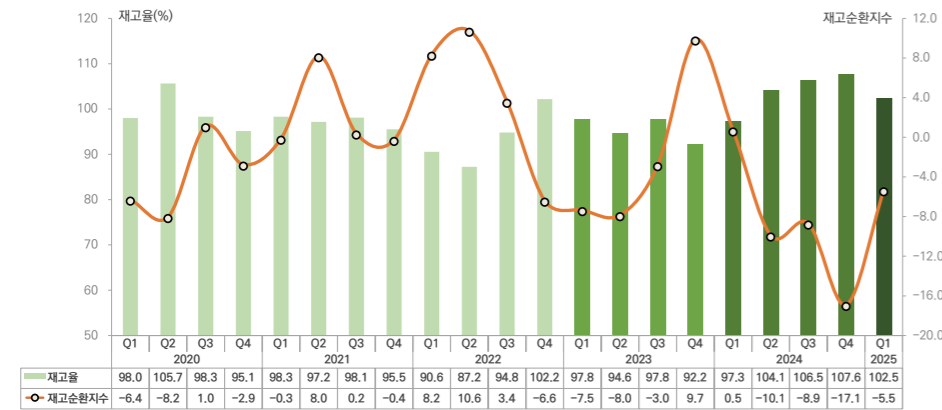
주 1) 기타식품에는 떡·빵·과자류, 면류, 조미료 및 첨가물, 건강보조식품, 도시락 등이 포함됨.
 2) 생산자물가지수는 출하지수의 산업 분류와 유사하게 적용하여 계산함.
 자료: 통계청, 「공업제조업동향조사」, 2025.3., 2025.5.1., 시도/산업분류별 주요지표; 한국은행, 「생산자물가지수」, 2025.3., 2025.5.1., 생산자물가지수.

3. 식품제조업의 재고 현황

2025년 1분기 식료품제조업 및 음료제조업의 재고율 모두 100% 초과하여 제품 재고 증가세가 이어짐

- 2024년 식료품제조업의 재고율은 전반적으로 100%를 초과하였으며, 2025년 1분기에도 이와 같은 추세가 지속된 것으로 나타남.
 - 2024년에는 1분기(97.3%)를 제외하고 모든 분기에서 재고율이 최저 104.1%에서 최고 107.6%를 기록하며, 제품 재고량이 출하량을 상회함. 2025년 1분기의 재고율은 102.5%로, 전년 동기 대비 5.2%p 상승하였으며, 이는 최근 5개년(2020~2024) 1분기 중 가장 높은 수치임.
 - 2025년 1분기 식료품제조업의 재고순환지수는 -5.5로 전년 동기 대비 재고 증가율이 제품 출하 증가율을 상회한 것으로 나타남. 다만, 직전 분기(-17.1)에 비해서는 재고-출하 간 격차가 다소 완화된 양상임.
 - 재고순환지수 추이: ('24년 1분기) 0.5 → (2분기) -10.1 → (3분기) -8.9 → (4분기) -17.1 → ('25년 1분기) -5.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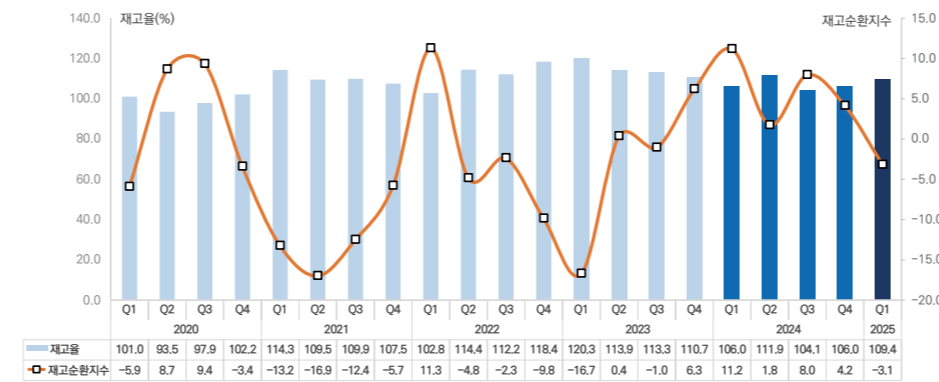
식품제조업 분기별 재고율과 재고순환지수



주: 2025년 1분기 수치는 잠정치로, 추후 통계 확정 시 일부 조정될 수 있음.
자료: 통계청, 「광업제조업동향조사」, 2025.3., 2025.5.1., 시도/산업별 광공업생산지수.

- 2024년 음료제조업의 재고율은 105~110% 수준에서 등락을 반복하였으며, 2025년 1분기 들어서도 유사한 수준을 유지함.
 - 2024년 분기 재고율은 최저 104.1%에서 최고 111.9%를 기록하며, 전반적으로 제품 재고가 출하량을 상회하는 흐름이 이어짐. 2025년 1분기의 재고율은 전년 동기대비 3.4%p 상승하여 재고 증가세가 이어짐.
 - 2025년 1분기 음료제조업의 재고순환지수는 -3.1을 기록하며 다시 음(-)의 영역으로 전환됨. 이는 제품 재고 증가율이 출하 증가율을 상회하였음을 의미함.
 - 재고순환지수 추이: ('24년 1분기) 11.2 → (2분기) 1.8 → (3분기) 8.0 → (4분기) 4.2 → ('25년 1분기) -3.1

음료제조업 분기별 재고율과 재고순환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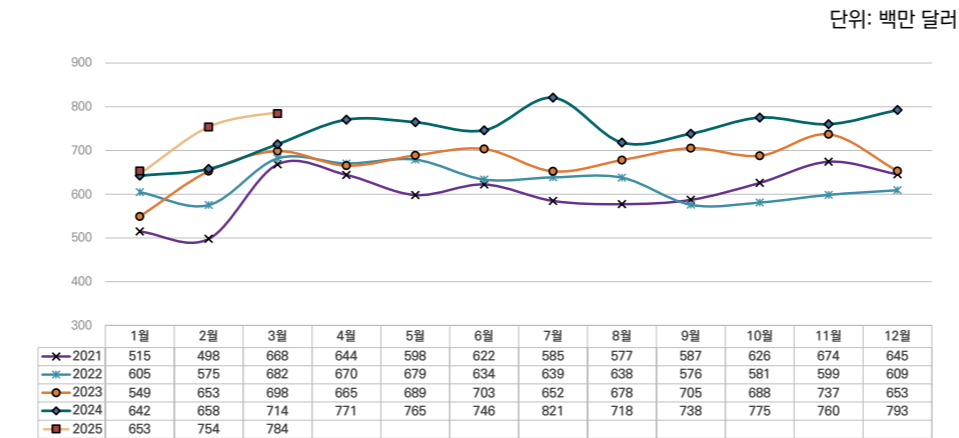
주: 2025년 1분기 수치는 잠정치로, 추후 통계 확정 시 일부 조정될 수 있음.
자료: 통계청, 「광업제조업동향조사」, 2025.3., 2025.5.1., 시도/산업별 광공업생산지수.

4. 가공식품 수출입 동향

K-Food 인기로 인한 글로벌 수요 증가로 2025년 1분기 가공식품의 수출액은 역대 최고치 경신

-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으로 수출 환경에 대한 불확실성이 제기되었음에도, 2025년 1분기 가공식품 수출액은 21.9억 달러로, 전년 동기(20.1억 달러) 대비 8.8% 증가하며 역대 최고 수출 실적을 기록함.
 - 주요 수출 품목 중 곡물 및 곡분 제조품이 6.2억 달러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이어서 조제 식료품(4.3억 달러), 담배 및 제조담배 대용물(2.7억 달러), 음료·주류·식초(2.6억 달러) 등이 뒤를 이었음.
 - 전년 동기 대비 수출 증가율이 두드러진 품목은 식용 유지로,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이 188.7%로 가장 큼. 다음으로는 코코아 조제품(70.1%), 곡물 및 곡분 조제품(14.3%), 담배 및 제조담배 대용물(12.9%), 채소 및 과일 조제품(5.0%) 등의 순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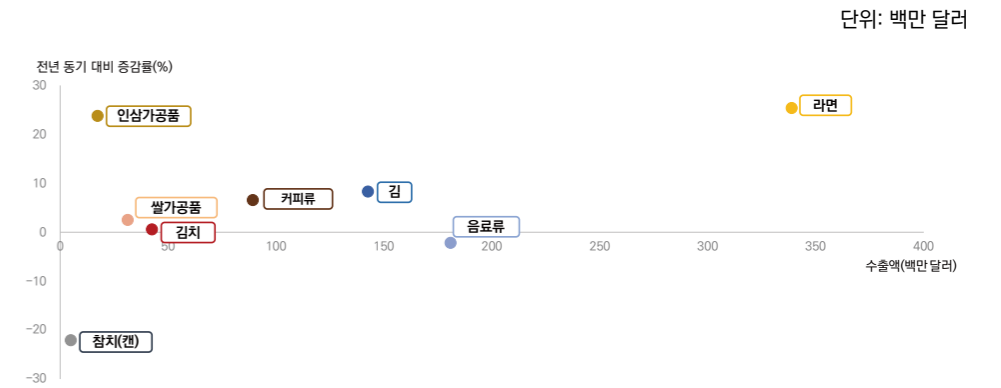
가공식품 월별 수출액 추이



주: 가공식품 품목 범위는 HS코드 04, 11, 15-24로 정의
자료: 관세청 수출입무역통계, 「수출입 실적」.

- 2025년 1분기 기준, 전년 동기 대비 수출 증가율이 큰 가공식품 주요 품목은 라면류(25.4%), 인삼가공품(23.8%), 김(8.3%), 커피조제품(6.6%), 쌀가공품(2.5%) 등의 순으로 나타남.
 - 라면 수출은 전 세계적으로 매운맛에 대한 선호가 확산됨에 따라 주요 해외 시장에서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인삼가공품은 신선식품인 인삼 수출 확대와 더불어 중국과 미국 시장을 중심으로 제품의 규격 및 함량을 다양화함으로써 수출 시장이 점차 확대되고 있음.

2025년 1분기 주요 수출 품목군별 수출액과 증가율



자료: 관세청 수출입무역통계 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 2025년 1분기 케이푸드 플러스(K-Food+) 수출 누적액(잠정)은 31.8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7.9% 증가함.
 - 그중 농식품(K-Food)은 24.8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9.6% 증가하였으며, 농산업(스마트팜, 농기자재, 동물약품 등) 분야의 1분기 수출도 7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3% 증가함.
 - 권역별로는 미국, 일본, 중국이 수출 상위 1~3순위를 유지하였으며, 미국 수출 비중은 지난해보다 2.2%p 증가함. 주요 수출국(미국, 일본, 중국)에 대한 집중률은 44.3%로 전년 동기(44.5%)보다는 소폭 감소하며 일부 완화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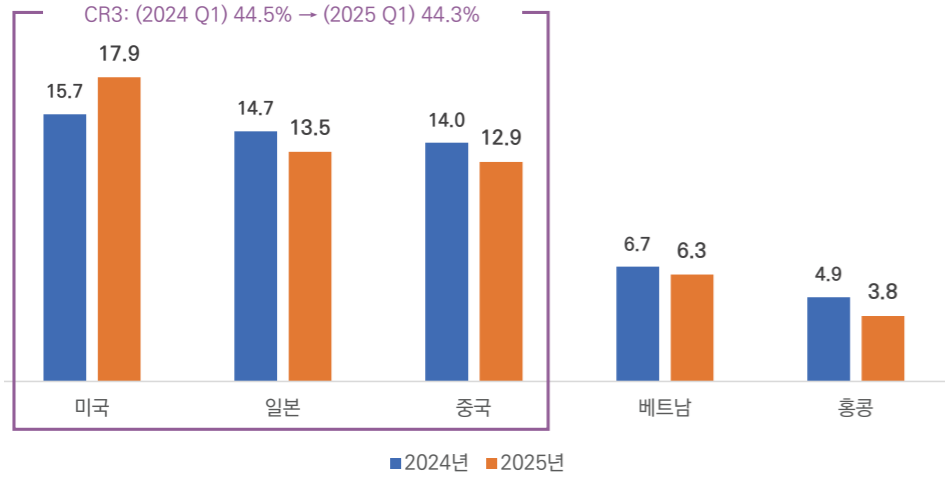
2025년 1분기 기준 누적 농식품 수출실적

구분	2024년 1분기	2025년 1분기	증감률
K-Food+	2,952.3	3,184.3	7.9
농식품	2,263.9	2,480.2	9.6
- 신선식품	353.4	357.3	1.1
- 가공식품	1,910.5	2,122.9	9.6
농산업	688.4	704.1	2.3
- 농기자재	641.1	667.6	4.1
- 스마트팜	22.6	19.0	-16.1
- 동물용의약품	41.3	66.4	60.8
- 펫푸드	39.4	40.3	2.2
- 식품기자재	5.1	-	-

주: 면세점 수출액을 포함한 금액으로, 관세청 수출입무역통계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2024.4.3.).

2025년 1분기 기준 수출 상위 5개 국가 및 수출집중률

단위: %



자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식품수출정보.

2025년 1분기 가공식품 수입액은 41.2억 달러로, 전년 동기(41.8억 달러) 대비 1.3% 감소함.

- 주요 수입 품목 중 조제 식료품이 6.7억 달러로 가장 높은 수입액을 기록하였으며, 이어서 식용 유지(5.7억 달러), 조제사료(5.4억 달러), 채소 및 과일 조제품(3.9억 달러)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전년 동기 대비 수입 증가율이 큰 품목으로는 코코아 조제품이 38.8% 증가하며 가장 큰 증가세를 보였고, 다음으로는 낙농품(31.9%), 식용 유지(26.9%) 등의 순으로 나타남. 반면, 수입이 크게 감소한 품목은 조제사료(-22.4%), 담배 및 제조담배 대용물(-21.5%), 당류(-11.7%) 등으로 확인됨.

가공식품 월별 수입액 추이

단위: 백만 달러



주: 가공식품 품목 범위는 HS코드 04, 11, 15~24로 정의

자료: 관세청 수출입무역통계, 「수출입 실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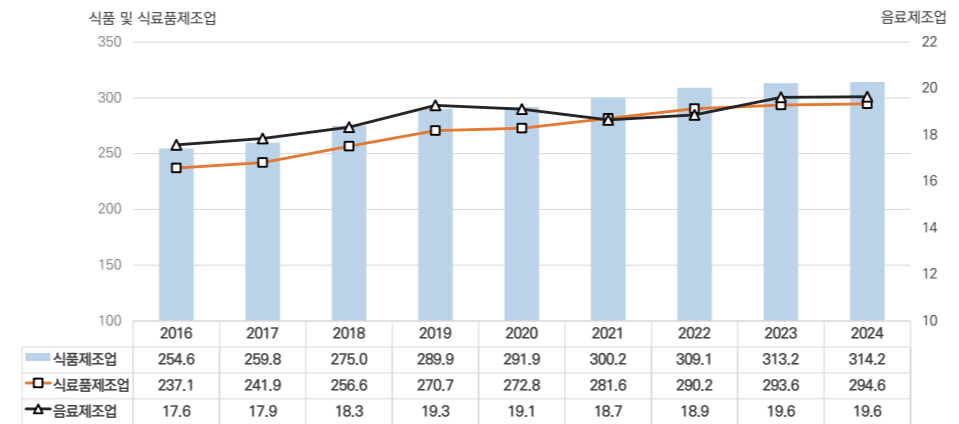
5. 식품산업 고용 동향

2025년 1분기 식품제조업 취업자 수는 전년 동기대비 소폭 상승하며 최근 5개년(2021~2025년) 1분기 중 최대치 기록

- 2024년 식품제조업 취업자 수는 31만 4,200여 명으로 집계되어, 전년 대비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해당 증가세는 식품제조업 부문이 주도하였음. 식품제조업 부문 취업자 수는 29만 4,600명으로 전년 대비 0.3% 증가하였으나, 음료제조업 부문은 1만 9,600명으로 전년 대비 0.1% 증가하는 데 그침.

식품제조업 취업자 수 추이

단위: 천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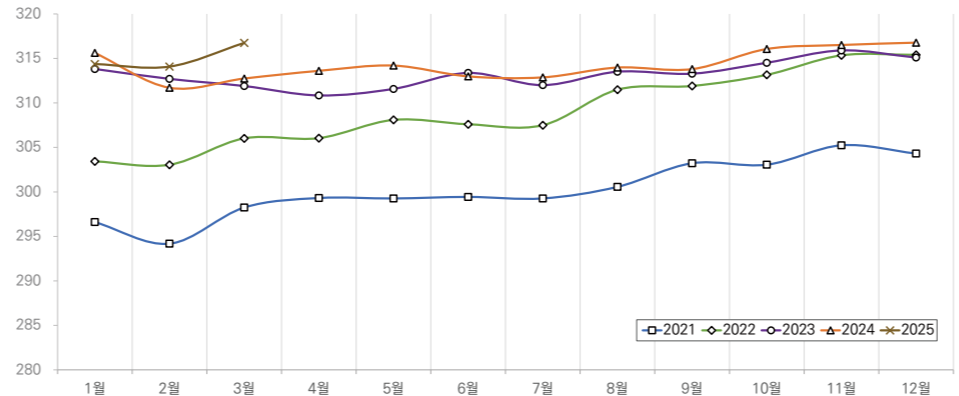
자료: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2025.3., 2025.5.7., 산업/규모별 고용.

2025년 1분기 기준 식품제조업의 취업자 수는 31만 5,00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0.5% 증가하였으며, 최근 5년(2021~2025년) 중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함.

- 식품제조업 부문 취업자 수는 29만 5,700명으로 전년 동기대비 0.7% 증가한 반면, 음료제조업은 1만 9,300명으로 전년 동기대비 1.9% 감소함.

최근 5년간 식품제조업 월별 취업자 수 추이

단위: 천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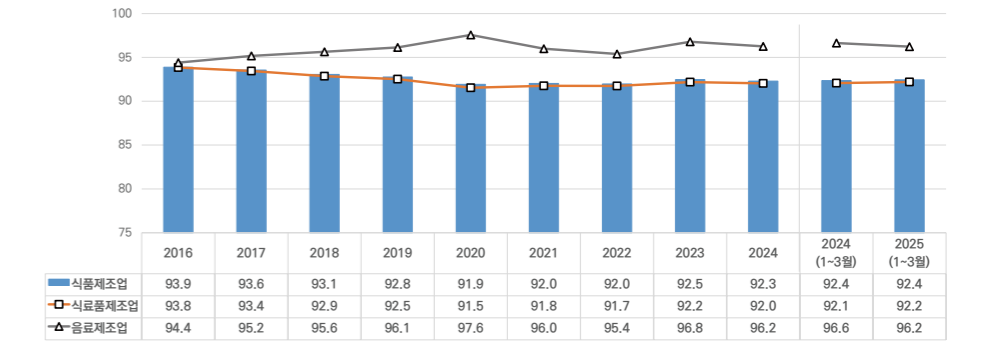
자료: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2025.3., 2025.5.7., 산업/규모별 고용.

2025년 1분기 기준 식품제조업 취업자의 상용직 비율은 92.4%로 전년과 유사한 수준을 보임.

- 식품제조업 부문의 상용근로자 비율은 92.2%로 전년 동기 대비 0.1%p 증가한 반면, 음료제조업은 96.2%로 전년 동기 대비 0.4%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식품제조업 취업자 중 상용근로자 비율

단위: 천 명



주: 사업체노동력조사는 1인 이상 고용하는 사업체(50,000개)를 대상으로 표본조사를 실시하는 통계로, 비임금근로자를 포함한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를 전수조사하는 전국사업체조사의 결과와는 다소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자료: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2025.3., 2025.5.7., 산업/규모별 고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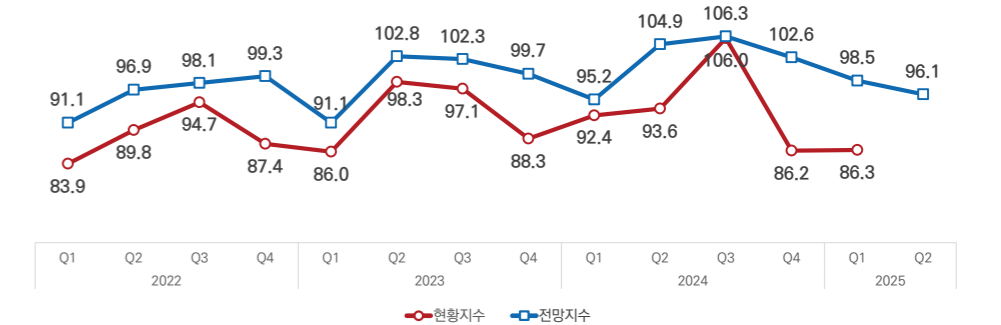
6. 식품제조업의 2분기 경기 전망

2025년 2분기 식품산업 경기 전망은 업종별로 편차는 존재하나, 상당수 업종에서 경기 개선을 기대

식품산업 경기동향지수 조사결과에 따르면, 2025년 2분기 경기전망지수는 96.1로 집계되어 경기 개선에 대한 기대감은 낮은 수준에 머무는 것으로 나타남.

- 2025년 1분기 경기전반 현황지수는 86.3으로, 직전 분기(86.2)와 동일하게 기준선(100)을 하회함. 이는 경기 악화를 체감하는 업체가 여전히 많은 상황임을 시사함. 2분기 경기전망지수는 96.1로 나타나, 향후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가 여전히 제한적인 것으로 조사됨.

식품산업 경기동향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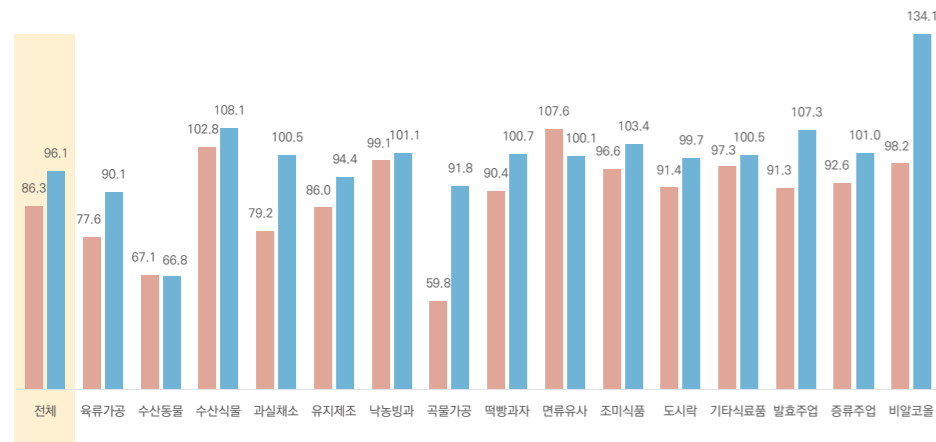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경기동향조사」, 2025.1/4., 2025.5.1., 식품산업 경기 현황·전망지수 종합.

● 그럼에도 상당수 업종(비알코올, 수산식품, 발효주업, 조미식품 등)에서 2025년 2분기에는 경기 회복을 기대하는 것으로 나타남.

- 1분기에는 면류유사, 수산식품 업종을 제외한 대부분 업종에서 경기 악화를 체감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이는 물가·금리·환율 상승 등 국제 정세 불안 등 외부 환경 요인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됨.
- 2025년 2분기는 환경적 요인(원재료 작황, 기후, 날씨)과 사업 확장(신제품 출시, 판로개척) 등의 요인에 힘입어 다수 업종에서 거래·소비 증가에 따른 경기 회복세 전환을 기대함.
 - 호전 전망 업종 : 비알코올(134.1), 수산식품(108.1), 발효주업(107.3), 조미식품(103.4), 낙농빙과(101.1), 증류주업(101.0), 떡빵과자(100.7), 과채가공(100.5), 기타식품(100.5), 면류유사(100.1)

■ 식품제조업 업종별 2025년 1분기 경기 현황 및 2분기 경기 전망



주: 1분기 현황은 전분기 대비, 2분기 경기 전망은 금분기 대비를 기준으로 함.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경기동향조사」, 2025.1/4., 2025.5.1., 식품산업 부문별 현황 및 전망.

● 이와 더불어 농식품부는 2025년 '전략작물(밀·콩·가루쌀) 제품개발 지원사업'을 통해 전략작물을 활용한 제품 개발을 촉진함으로써, 쌀 수급 안정 및 안정적 수요 기반 조성을 도모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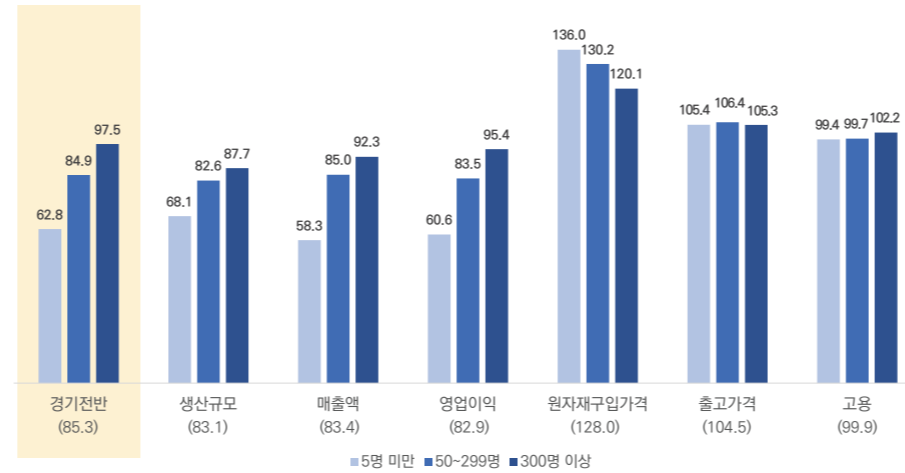
- 국산 밀을 활용하여 빵, 떡볶이, 과자, 국수 등 다양한 제품군 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들 제품은 향후 학교급식 및 공공급식 등 공공부문 납품을 중심으로 활용 범위를 확대할 계획임.
- 가루쌀을 활용한 케이크류와 식사용 빵류, 바삭한 식감을 구현한 프리믹스 제품 등 다양한 형태의 제품 개발도 추진하고 있음.

● 기업 규모별로 중·소규모 기업은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상대적으로 낮은 반면, 대규모 기업은 경기 호전을 전망함.

- 종사자 수 300명 이상의 대규모 기업은 생산규모 및 매출액 부문에서 1분기 대비 호전될 것으로 내다본 반면, 5인 미만의 영세 식품기업의 경우 매출 여건과 더불어 인력 수급 등 고용 여건의 악화로 경기 호전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응답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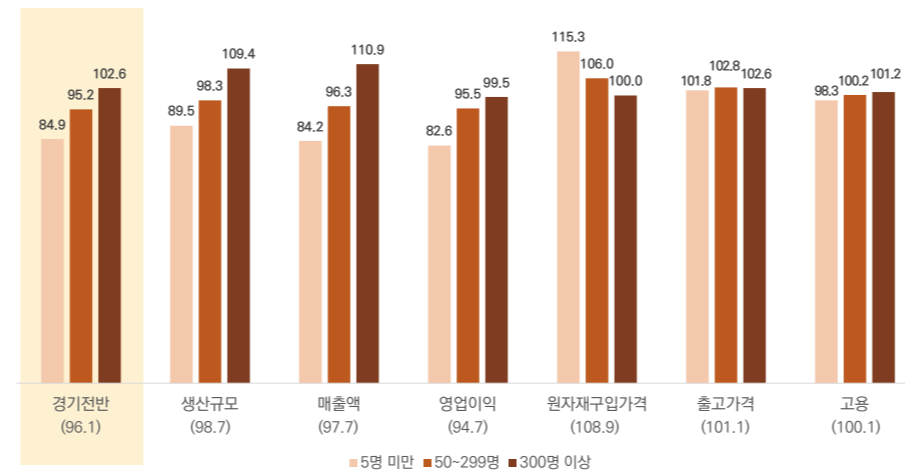
- 2025년 1분기 식품산업의 원자재 구입가격 지수는 128.0으로, 모든 규모의 식품기업에서 전 분기 대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특히 종사자 수 5인 미만의 소규모 업체는 136.0을 기록하며, 상대적으로 원자재의 가격 상승을 높게 체감한 것으로 조사됨.
- 2025년 2분기에도 원자재 구입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예측되나, 상승 폭은 다소 둔화될 것으로 전망됨.

■ 식품산업 규모별 2025년 1분기 경기 현황



주: 1분기 경기 현황은 전분기 대비를 기준으로 함.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경기동향조사」, 2025.1/4., 2025.5.1., 식품산업 부문별 현황 및 전망.

■ 식품산업 규모별 2024년 2분기 경기 전망



주: 2분기 경기 전망은 금분기 대비를 기준으로 함.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경기동향조사」, 2025.1/4., 2025.5.1., 식품산업 부문별 현황 및 전망.

저자 정보

- 박미성 연구위원(061-820-2362), mspark@krei.re.kr
- 김성희 연구원(061-820-2054), seongkim@krei.re.kr